

SK그룹, 사회적기업 활성화 주도

최태원 회장, 자가발전적 생태계 구축 필요 ... 글로벌 액션허브 구축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유엔이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6월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리우+20 기업지속가능성 포럼> 폐막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가발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전제한 뒤 “SK그룹은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플랫폼인 <글로벌 액션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액션 허브는 단순한 IT 플랫폼을 넘어 투자자와 전문가, 사회적 기업가의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 다양한 담론 생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앞으로 글로벌기업이나 국제단체 등 파트너를 추가 확보해 2014년 말 시스템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19>